



서정배 작  
'심상-존재의 이유'



최분아 작  
'검허함의 향기'



부안서 개최 '매창취호대회' 성료

"이화 후 흠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은 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더라"  
조선시대 여류 시인 황진희와 쌍벽을 이룬 이매창을 기리는 제9회 전국매창취호 대회 및 시상식이 지난 17일 부안 예술회관 대목극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개최됐다.  
(사)한국예총부안지회(지회장 김종문)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서예 문인화가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회결과 한글부문 서정숙씨(충남 당진시)가 대상, 우수상 한문부문 이준호(부안군), 한문부문 김종선(충북 충주시), 문인화부문 김영자(부안군)씨가 수상했으며, 특선은 강덕만(경기도 고양시)씨 외 9명, 장려상은 박대일(부안군)씨외 14명, 입선은 류병수(대구시) 외 12명이 선정됐다.  
입상된 작품은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안예술제 기간동안 부안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도록은 전국에 배포된다. /정해은 기자

▶ 서양화가 서정배 최분아 부부 전시회 '따로 또 같이' 오늘 'OPEN'

# 작가만의 조형언어로 온화한 향기 전하다

25일까지 전주교동아트미술관서... 결혼 25주년 기념

서양화가 서정배·최분아 씨의 부부 전시회 '따로 또 같이'가 20일 오후 6시 오프닝행사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전주교동아트미술관에서 열린다.  
부부의 결혼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1996년에 열린 '따로 또 같이'에 이은 두 번째 기획전시.  
작가 겸 교육자인 서정배 씨는 교직생활

의 빠듯한 골레 속에서도 꾸준히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  
작가는 '심상-존재의 이유'라는 추상작업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형상화 한다.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붓의 흔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외면과 내면의 세계를 담아낸다.  
'검허함의 향기'라는 주제로 열다섯 번

째 개인전을 개최할 만큼 내면에 응축된 힘을 지닌 최분아 작가는 온화한 정감과 섬세하면서도 감성적 세계를 표현한다. 작품 속 꽃들은 전통적인 표현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만의 조형언어로 피어난다.  
두 작가의 대학교 은사이자 주례를 서준 이창규 원광대 미술대학 명예교수는 "이들 작가들은 대학동기생으로 결혼하여 한 보금자리에서 서로 창작활동을 하며 아름답게 살고 있다"면서 "하나의 씨앗이 꽃을 피우기까지 바람·폭우 등의 갖은 시련이

찾아오지만 이를 이겨내면 이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슬기로운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온화한 향기로 오래도록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 작가는 현재 남원하늘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며, 최 작가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 서양화분과 이사, 한국전립미술가협회 전라북도지회 이사, 전북여성미술인협회 이사, 환경미술협회 전북도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22일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소리 공유'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관현악단은 봄의 끝자락을 잡는 공연 '소리 공유'를 마련한다.  
22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실내악 형태의 연주로 진행된다.  
이날 공연에는 관현악단 고은현 단원이 사회를 맡아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2017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춘향춤 경연대회'가 지난 17일 저녁 7시 30분부터 사랑의 광장에서 '전통을 느낀 몸짓'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도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남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하여 도내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 생활문화예술동호회(무용분과)의 대표적인 춤 경연대회로

남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춘향춤 경연대회' 성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무용, 발리댄스, 춤바댄스,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춤 솜씨를 보여준 이번 '춘향춤 페스티벌'은 남원을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에서 총 10개의 춤(무용) 동호회가 참가했다.  
문화를 예술 사랑하는 순수 예술인들로

구성된 지역 춤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점점 더워지는 초여름 저녁에 춤과 무용을 통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남원의 고유정서를 소재로 한 '춘향춤 페스티벌'을 통해 전북도 내 생활문화에

술동호회의 지역 간 교류를 증진하고, 시민과 함께 어울려 신명난 놀이판을 만들어 삶의 활력을 찾아 건강한 시민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한편 남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오는 7월 15일 오후 7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도내 9개 시·군을 대표한 난타 동호인들이 참가한 열정의 난타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전북청소년연극제 대상... 지평선고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여성적 취향 가진 남학생 · 고급용품 갖고싶어하는 가난한 집 딸의 성장기 담아

제21회 전북청소년연극제에서 지평선고등학교가 연극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로 대상(전북도지사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상수상은 지난해 '모든 학생은 불쌍하다'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연극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오타드(여성용 발레복)을 입는 개인취향, 혹은 여성적 취향을 가진 남학생의 이야기와 안나수이 손거울로 대표되는 고급용품을 갖고 싶어 하는 가난한 집 딸이 자아를 찾아가는 성장기를 그린다.  
지평선고 연극부 아파시오나토는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오는 8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21회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홍석찬·김경민·조승철 심사위원단은 "아파시오나토는 공감의 기술을 잘 알고 있는 팀"이라며 "공연은 쉽고 유쾌하고, 깊이 있게 전달됐다. 연극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자를 향한 시선이 따뜻했으며, 학교연극이 학생들에게 Show로 비쳐지기도 하고 사회와 어른들에게 향한 제언으로 비쳐졌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팀은 정확한 발성으로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며, 몸의 움직임과 배역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듯 표현했다. 또한 대본의 완성도가 높고, 배역들의 역할이해와 표현이 어느 학교보다 현실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은 전주여고 학교정의 개교전선기 '행복은 외로운

이 아니잖아요!' · 군산여고 '너희와 함께라면' · 호남제일고 FM43.9'이, 우수상은 군산동고 '그 날' · 전주시대부속고 '종이비행기' · 이리여고 '방관자 효과' · 전주제일고 '탈과 그림자'가 각각 수상했다. /정해은 기자

군산문화원, 28일 2017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군산문화원(원장 이진원)은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문화원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갖는다.  
지난 4월부터 문화원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보여줄 공연은 농악, 전통춤, 민요와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인 오카리나 그리고 할머니가 동호인들이 그 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행사는 문화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산 시민들 속으로 친근하게 더욱 더 가까이 가기위해 마련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원 원장은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혀줄 수강생들의 공연에 시민여러분들을 초대한다"면서 "나이를 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합찬 박수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2014년부터 문화홍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군산=장 현 기자

## 열린의회, 알찬의정

# 제7대 순창군의의회

**제225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 ▶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 6.8 ~ 14**
- ▶ **조례안 등 심사 : 6.15 ~ 16**
- ▶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6.19 ~ 23**

순창군의의회는 15만 내외 군민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견 바랍니다.  
(문의 : 650-1043)

## 순창군의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정천로 33  
<http://www.sunchangcouncil.go.kr>